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김성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30('23-8) | 2023. 8. 1.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우리의 다짐
문성묵

한반도 정전협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망
박동순

8월이면 생각나는 전투(통영상륙작전)
박순제

정전협정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우리의 다짐

문 성 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장)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한미동맹 출범 70년이 되는 해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직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서명되었다. 이처럼 정전협정과 한미동맹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정전협정은 한반도에 전쟁 재발을 방지해 온 유일한 법·제도적 장치이며, 한미동맹은 북한 공산집단의 재침을 막아내는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했다. 이 양대 축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 하지만 북한의 남침 야욕은 전혀 변함이 없다. 정전체제를 무실화시키고 핵 무력을 앞세워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무력적화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정전협정 70년,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우리는 두 가지의 다짐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대부’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을 기억하자.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이승만은 당대 최고의 국제정치 전문가이다. 건국 당시 대한

민국은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사주로 세워진 북한 집단의 남침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기에 이승만은 미국에 연합국방(동맹)을 제의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하고 1949년 소수의 고문관만 남기고 미군을 모두 철수시켰다. 1950년 1월 미국무장관 애치슨은 태평양 방위선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을 제외했다. 김일성은 미국이 대한민국(남조선)을 버렸다고 판단했다. 급기야 스탈린의 승인과 모택동의 지원 약속을 받아낸 후 6·25 기습남침을 감행했다.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기고 1개월여 후에는 전 국토의 90% 정도를 김일성에 내주었다. 만일, 미국이 이승만의 말을 들어 동맹을 맺었다면 6·25는 없었을 것이다.

다행히도 1945년 창설된 국제연합(유엔)은 최초로 집단안보를 한반도에서 실행했다. 남침 직후 유엔은 공산군 격퇴 결의와 유엔군창설결의를 잇달아 채택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다.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역전한 유엔군은 파죽지세로 압록강까지 밀고 갔다. 하지만 중공군의 불법 개입으로 흥남 철수, 1.4 후퇴 등의 고통을 겪었다. 1951년 7월 소련의 선 제의로 휴전협상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포로교환 문제로 협상타결에 난항을 겪었다. 결정적인 난제는 이승만의 정전협정 체결 반대였다. 전쟁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트루먼(민주당)의 뒤를 이은 아이젠하워(공화당)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돌아가려 했다. 미국이 이대로 떠난다면 김일성은 반드시 재침할 것을 잘 알고 있는 이승만은 정전협정 체결 이전에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은 소극적이었다. 1953년 6월이 되자 미국은 이승만을 보이콧하고 급속히 포로협정을 타결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했다. 이승만을 넘지 않고는 정전협정 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아이젠하워는 정전협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제의했다. 이에 이승만은 동맹조약 체결, 신속한 전후복구 및 강군육성 지원, 통일지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일주일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가서명된 것이다. 이승만이 없었다면 한미동맹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승만의 공적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정전협정 준수와 한미동맹 강화가 진정한 평화의 길임을 기억하자.

정전협정은 공산군을 일방으로 유엔군을 다른 일방으로 체결된 국제조약이다. 한국군은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별도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당사자이다. 유엔사는 6·25 전쟁 당시 우리 자유와 평화를 지켰으며, 이후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정전관리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뿐 아니다. 북한 재침 시에는 전력제공자의 역할도 맡고 있다.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는 유사시 병참기지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전협정은 유엔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잘 아는 북한은 유엔사 해체를 지속 주장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62항에 따라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즉, 평화협정에 의해서만 대체될 수 있다. 김일성은 월남 공산화(1975)를 보면서 미국과 평화협정 체

결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평화협정을 맺으면 미군을 내보낼 수 있고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 여건 명분 조성을 위해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2013)했다. 그런데 정전협정도 지키지 않는 북한이 평화협정을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은 평화협정 운운 이전에 정전협정 백지화부터 철회하고 준수를 약속해야 한다.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도 완전폐기(CVID)해야 한다. 그 이후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하다. 북한이 핵을 계속 고집한다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억제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진정한 평화는 힘으로만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정전협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망

박 동 순

(한성대 교수,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장)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한반도의 정전협정 70주년을 회고하면서

2023년은 대한민국에게 매우 뜻깊은 해이다. 동서냉전의 첨단이었던 한반도에서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이 1,129일 동안의 처절한 격전을 치루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년이 되었기 때문이다. 6·25전쟁은 북한의 김일성이 주도하고 소련의 사주와 중공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전쟁이었다. 전쟁 개시의 선전 포고도 없는 말 그대로의 불법 기습 침략전쟁이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가장 취약한 시기에 북위 38도선 전 정면에서 소련제 신무기로 무장하고 중공의 전투경험이 풍부한 북한인민군대가 대한민국의 적화를 위해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의 침략에 대해 정당한 방어였다고 전쟁 발발의 책임을 전가하였다. 탈냉전 이후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많은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서 전쟁 원인설의 날조된 주장은 수그러들었다. 당시 모든 면에서 두 배 이상의 전력 격차와 준비된 기습을 받은 한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힘겹게 싸웠다. 다행스럽게도 북한 공산집단의 불법침략을 규탄한 유엔 결의안을 근거로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16개 우방국이 전투 병력을, 6개의 의료지원국과 40여개의 국가들이 물자와 재정을 지원하면서 6·25전쟁에 동참하였다.

6·25전쟁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사령부의 도움으로 낙동강전선에서 적의 공격을 차단했다. 그리고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하여 9월 28일, 피탈되었던 서울을 3개월 만에 수복했다. 10월 1일엔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하였고 10월 19일에는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에 입성했다. 10월 말에는 압록강상의 국경선까지 진격했으나, ‘항미원조(抗美援助)’의 명분으로 중공군이 대거 개입함으로써 1.4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전선은 전쟁 이전의 38도선 부근에서 고착되어 누구도 승리하기 쉽지 않은 전쟁이라는 점을 인식하자 휴전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 정부와 군은 이 기회에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하고자 휴전협상을 반대했다. 그러나 강대국들의 논리에 의해 한반도에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불안정한 평화체제가 형성되었다. 이후 한반도의 남과 북은 치열하게 이념과 체제경쟁을 겪었다.

생존을 위한 군비경쟁으로 자유와 복지를 담보해야 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어 지난 7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해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전망

지구의 반대편인 동유럽에서는 2022년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17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양측의 사회·경제적 피해와 병력 손실은 커지고 무기도 고갈되고 있다. 대부분의 전쟁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러시아는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월등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서방에 비교하면 충분하지 않다. 약소국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주된 공간이 되어 인적·물질적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인구의 3분의 1이 난민이 되어 주변국을 떠돌고, 산업생산이 3분의 1 이상 줄어들면서 국가가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지원이 없다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당사국은 물론 이를 지원하는 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가 피로감에 빠져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끝나게 될 것인가를 궁금해 한다. 현재로서는 이 전쟁의 향배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조심스럽게 이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자 입장에서 휴전이나 종전 협상의 의지가 전혀 없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3개월 이내에 점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국민 총력전 의지와 미국과 서방의 지원으로 개전 3개월 이후부터 점령지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17개월이 지난 현재는 동부 및 남부 일대에 전선이 고착되어 러시아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완전 철수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쟁을 지속하겠다”며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4개주를 점령한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후 최대의 군사력을 동원했으나 고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푸틴은 침공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미국 등 서방에 굴복할 생각이 없다. 따라서 미국과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전쟁의 장기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제3국의 중재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은 몇 차례 중재를 시도했으나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진전을 이끌지 못했다. 중국은 ‘평화 실현을 위해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지지원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동부의 돈바스 등 영토를 빼앗긴 채 전쟁을 끝내게 될 것이기에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서방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탄약 지원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다수 국가들은 양국이 현재 접촉선을 경계로 종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것이 강대국 러시아의 체면을 살리면서 현실적으로 전쟁을 멈추거나 끝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 없이 전쟁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대국 러시아를 이기기 쉽지 않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패한다면 나토는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상황이 악화되어 러시아의 핵사용 위협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질수록 전쟁을 끝내기 위한 중용과 협상은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쟁이 장기화 되는 것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2024년 전반기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2023년 말쯤이면 협상의 불씨가 살아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웃의 약소국을 침략한 러시아가 돈바스 등 동부 지역을 점령한 채 협정이 되거나, 침략을 받아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잃고 협정이 맺어지는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러시아가 전쟁 이전으로 군대를 물리고 침공에 대한 배상한다면 좋을 것이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마도 6·25전쟁처럼 협상당시의 전선을 경계로 정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개전 2년쯤 되는 2024년 초에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의사보다는 강대국들의 논리에 의해 전쟁이 멈추게 될 것으로 예측해 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전쟁은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너무나 크고 중대한 일이라 직접 경험해 보고 지혜를 얻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렇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국이 반면교사(反面教師)로 배워야 할 점은 너무도 많다. 한국은 73년 전 공산세력의 침략에 맞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국과 3년 동안의 처절한 전쟁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당시에 침략을 당한 한국은 휴전협상을 반대하였으나, 강대국들의 논리로 국토가 분단된 채 ‘종전이 아닌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가총력전 태세의 확립과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는 지정학적 특성상 큰 변화의 계기마다 주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각축을 벌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에 한국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동맹의 결속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력과 위상에 걸맞도록 6·25참전국에게 보답하고 세계 분쟁의 현장에 평화를 심는 국제평화활동(PKO)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차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지지와 지원을 확보하고,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국민적 의지를 다지는 7월이 되어야 한다.

8월이면 생각나는 전투 : 통영상륙작전

<귀신 잡는 해병>이 된 해병대 최초 단독 상륙작전

박 순 제

(대덕대학교 국방해양부사관과 교수)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8월만 되면 생각나는 전투가 있다. 6·25전쟁하면 대부분 1950년 6월 25일을 기억하고, 6월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6·25전쟁 중 상륙작전 하면 대부분 인천상륙작전을 이야기 한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전투는 일반 국민에게는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1950년 8월 17일 일어났던 통영상륙작전. 8월이면 이 전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된다. 이 전투는 1950년 6·25전쟁 중 해병대 김성은 부대가 북한군이 낙동강 방어전선을 뚫기 위해 통영반도에 최초로 적전상륙작전을 감행하여 통영을 탈환한 작전이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경남 진해 덕산 비행장에서 창설됐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지리적 여건, 바다와 육지의 양면작전의 필요성 등이 높아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해병대를 창설하게 되었다. 1949년 5월 5일 대통령령 제88호로 해병대령이 공포되었다.

당시 초대 사령관 신현준 중령 휘하에 380명으로 출범했다. 해군에서 편입한 장교 26명, 부사관 54명, 병 300명이었다. 그해 8월 1일, 장교와 부사관, 병을 각각 증원해 2개 대대 규모로 증편했다. ‘무에서 유를 창조 한다’라는 해병대 정신을 기치로 굳건한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켜 남침했다. 한국의 무방비 상태에서 급속도로 내려와 두 달 만에 서울을 비롯한 남한 전역이 거의 북한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8월에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마지막 전선만 남게 되었다. 이 전선만 빼앗기면 북한의 일방적인 남침 승리로 끝날 판국이었다. 이 전선을 중심으로 양국이 서로 대치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낙동강 방어전선의 동부전선은 경북 포항 외곽, 중부전선은 경북 왜관 등 서부전선은 경남 마산

진동리에서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특히 **마산 진동리**로 침입한 북한군 적은 **마산, 진해, 부산**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해병대가 그 지역을 방어하고 있어 상호 대치중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이 지역 보다는 우회 침투지로 거의 무방비 상태였던 통영반도를 선택하고, 이곳을 점령해 거제도, 마산항, 진해만을 봉쇄하려고 했다.



북한군은 1950년 8월 16일, 경남 고성에서 통영으로 향했다. 북한군 제7사단 제51연대와 제104 치안연대 등 650명이었다. 한국 해병대 김성은 부대는 <즉시 거제도에 상륙하여 통영으로부터 거제도에 침입하려는 적을 격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8월 16일 22시에 출발하여 다음날 새벽 3시 해군함정 512호정과 평택호에 분승해 통영반도 동북방 1km 지점에 있는 지도(거제도 북방 연안)에 도착 했다. 이후 김성은 부대장은 거제도 서해안을 방어하는 것보다 통영반도에 상륙하여 적을 섬멸하는 것이 작전상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전 병력을 통영 장평리에 상륙시킨 후 일부 병력을 통영의 원문고개로 진출시켜 적의 후속부대를 저지하고, 주 전력은 통영 시내에 침입한 적을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다.

통영 근해를 경비하던 해군 함정 703·901·504·512·302·307호정 및 평택호 등의 지원 엄호 하에 8월 17일 18시 통영반도 동북방에 있는 **장평리**에 상륙을 개시했다. 이때 적은 해병대가 통영항구 정면으로 상륙할 것으로 판단하고, 고지에 배치하였던 병력을 통영 남해안 일대에 집결시켜 해안선에 배치시켰으므로 접전 없이 상륙

할 수 있었다. 상륙 후 공격을 개시한 제2중대와 제3중대는 각각 목표 지점을 점진 없이 점령하였고 상륙부대의 내륙 진출에 따라 해군잠정 901정은 원문고개 서측만 깊숙히 침투하여 통영시내로 침입하려는 적의 후속부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고성에서 원문고개로 통하는 진로를 포격하였다.

그 후 해병대는 밤을 세워 가며 맹렬한 공격 작전을 감행하여 8월 18일 새벽 제2중대가 원문고개로 진격하여 방어진을 구축하였고, 제7중대는 통영전투에서 승패의 판전이 되는 매일봉(망일봉)을 점령하였다. 해병대가 먼저 매일봉을 점령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던 적은 계속 매일봉을 향해 전진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제7중대의 맹렬한 사격공격으로 북한군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결국 분산돼 도주했다. 특히 통영 근해를 경비하던 한국 해군 504·512호 경비정이 목선 3척을 타고 달아나던 북한군을 격침시켰다. 통영에서 상륙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한국 해병대는 통영 원문고개를 점령하고 방어진을 구축했다. 이 고개는 북한군의 유일한 공격로이자, 통영 공격의 전술상 요지였다. 이 고개에서 한국 해병대는 빈번히 습격해 오는 북한군의 부대들을 육박전을 치열하게 감행하면서 격퇴시켰다. 이 전투 결과, 북한군 사살 469명, 포로 83명, **파발총** 128정, 아식소총 107정, 권총 13정, M1소총 3정, 기관단총 14정, 박격포 2문, 지프차 2대, 트럭 10대, 전화기 5대, 기타 포탄과 수류탄 등을 빼앗는 대전과를 올렸다. 한국군의 피해는 전사 15명, 부상 47명이었다.

통영 상륙작전은 한국 해군 함정과 해병대가 낙동강 방어전선을 우회 침투하려던 북한군을 제압시키는 대단히 큰 쾌거였다. 낙동강 방어선에 우리의 보급이 끊기지 않게 해주었다. 대한민국 해군·해병들이 최초로 성공시킨 단독 적전 상륙작전이였다. 특히 유엔군을 방어하기 위한 철수작전 중 유일한 공격작전이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국 해병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 잡는 해병> <무적해병> <아무나 해병대를 갈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들 말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말은 바로 이 통영 상륙작전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1950년 8월 23일, 미국 뉴욕 해럴드트리뷴誌의 마가렛 하킨스 기자가 통영 상륙작전을 취재하려고 통영 원문고개에 있던 김성은 부대를 방문했다. 그 현장을 확인한 기자는 한국 해병대가 통영에서 기습적인 작전으로 우세한 적군을 공격, 적의 점령지를 탈환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한국 해병의 감투 정신을 두고 "귀신이라도 잡겠다"라고 보도했다. 이것이 시초가 되어 그 이후 한국 해병대를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950년 9월 23일 서울 탈환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인천으로 출항할 때까지 통영을 평정하여, 당시 이 작전에 종군했던 외신 기자들은 하나 같이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특필 보도하면서 저마다 최대의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여전히 한반도는 남과 북이 휴전상태이다. 73년 전 북한의 남침으로 자유와 평화가 뭉개진 전쟁의 상흔은 여전하다. 이 상흔이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6·25전쟁 당시 위란을 극복했던 <귀신 잡는 해병대>를 되새겨 보면서, 나의 자유와 우리 공동체의 평화, 자본주의 체제 유지의 소중함을 느끼는 8월이 되었으면 한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